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

‘사업가 납치·살해’ 국제PJ와 부두목 조규석

“돈 때문에 벌인 범행” 해석…금전문제 등 검토

25일 체포된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1)이 ‘왜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고 밝혔다.

전후 맥락을 알 수 없는 발언이라 난해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돈 때문에 벌인 범행’으로 해석된다.

경북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 혼자 은신해 있던 조규석을 검거해 오전 11시3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지방청으로 압송했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조규석은 지방청 도착 직후 ‘협의를 인정하느냐, 납치와 살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준비된 듯한 대답을 한 뒤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규석의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 발언 배경에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금융권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조규석과 하수인들에게 폭행 당해 목숨을 잃은 사업가 A씨(57)는 2018년 부산지역 모 업체의 수백억원대 기업인수합병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이후 해당업체는 상장 폐지됐다. 때문에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이들은 A씨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 검찰에 다수 고소·고발했었다.

이른바 전국구 해결사로 통하는 조규석은 이 인수합병 건에 개입해 자신의 몫으로 A씨에게 수익원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규석이 잠적한 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관여한 기업인수합병 이후 조규석과 금전문제가 있었는지, 범행동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석은 과거 국제PJ와 행동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 광주 지역 모 건설사 사주 납치, 2013년 상대조폭 행동대장 납치, 2007년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1)이 25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조사받으려 들어가는 모습

속칭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피습 등에 연루돼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조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실종됐으며 이틀 뒤인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청 인근 주차장 차량 내부 뒷좌석에서 은몸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조씨를 도와 강도살인, 상해치사,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12년, 흉포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청구한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시한 ‘상해치사’ 혐의와 함께 ‘납치·감금’, ‘시신유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단신 ●

속초 앞바다서 60대 스쿠버다이버 실종

강원 속초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나올까 실종 상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20분쯤 A씨(62·인천)를 포함한 9명은 다이버업체 보트를 이용해 속초 동명항을 출항, 오전 8시30분쯤 영금정 동광 2.4km지점에서 입수했다.

수중레저 활동 중 오전 9시15분쯤 8명은 물 밖으로 나왔지만 A씨가 보이지 않자 보트 선장이 속초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500톤급 경비함정과 경비정, 속초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청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합동수색을 실시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중수색을 위해 속초서 구조대와 해양구조협회 속초지부 민간수중팀과도 협업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수심 약 37m로 확인됐다.

‘마스크 대량 팔아요’...허위 글 수익 챙긴 3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틈타 온라인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인 뒤 단란 받고 잠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등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전국 7개 유통업체로부터 2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글을 보고 접근한 업체들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시중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였다.

여친 살해 마대자루에 넣어 버린 20대 체포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을 살해한 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29)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여자친구 B씨를 마대자루에 넣어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목장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인아라뱃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후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발견당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의심환자 방문’ 허위사실 유포 40대 주부 검거

‘코로나19 의심환자가 OO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업무방해 혐의로 가정주부 A씨(46)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의심환자 30대 남성이 OO병원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다.

허위사실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확산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전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웨이하이, 한국발 입국자 전원 격리조치

승객 167명 시내 호텔 수용

14일간 증상 없어야 풀릴듯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웨이하이공항 당국이 25일 한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중국 관영 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웨이하이항공 당국은 현지 시각 이날 오전 10시 50분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 167명에 대해 전원 격리 조치했다.

공항 당국은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지정된 웨이하이 시내 호텔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항공 항공편에는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의 승객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강제 격리에 나선 것은 사실상이지만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웨이하이 시에는 12일간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틀 뒤엔 코로나 19 청정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면서 “웨이하이시 측이 지역 경제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웨이하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할 예정이며,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주(駐)청다오 총영사관과 한국상회는 승객들과 함께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등은 2~3일이 지난 뒤 격리 조치를 간소화하도록 웨이하이시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산둥성에 속한 칭다오시도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아라 기자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